



특집 돼지애를 맞으며

1995년도 건협 사업방향

국민건강 선진화 위한 원년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창립된지도 벌써 30년이 넘어 올해로 31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 30년 동안 건협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커다란 목표 아래 많은 일을 해왔다.

1964년, 제반 사회적 여건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에 관한 인식 또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 관리에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기협)였다.

이후 기협은 기생충 박멸 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 왔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기생충 감염률의 현저한 저하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협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기술·인력 등을 토대로 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국민 건강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성인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치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를 설립하고 대 국민 보건교육과 건강검사 사업을 실시했다.

그후 기협·건협의 통합, 한국건강관리협회로의 명칭 변경 등의 역사적 변혁을 거치면서 건협은, 다양한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30세의 성년이 된 현 시점에서는 대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안정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할 수 있다.

건협은 앞으로, 지난 30년간의 사업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더욱 활

발히 전개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건협은 1995년을 건협의 또 다른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의 선진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해 나갈 것이다.

1995년도의 건협 사업의 기본 방침은, 1) 과학적·합리적 사업 계획 수립, 2) 사업실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 사업 수행, 3) 대 국민 보건교육 강화, 4) 사회 환원 사업 확대, 5) 신규 및 특색사업 개발, 6)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 강화, 7) 국제 교류사업의 활성화 등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 방침 아래 건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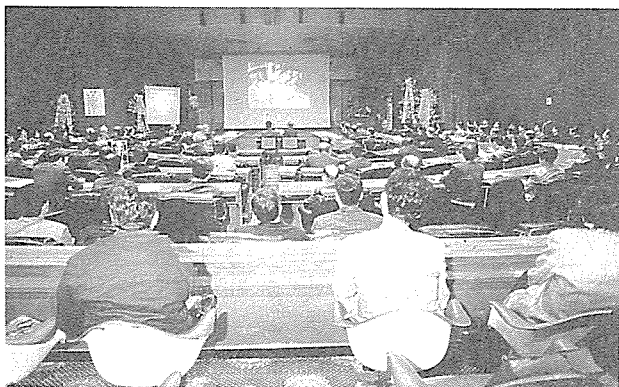
건협은 우선 국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모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질병 예방이라는 적극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들

의 보건의식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보건교육, 즉 지역별 건강관리 공개 강좌 확대 실시, 다양한 보건교육 자료 개발 및 활용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건협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별회원 모집·관리하여 국민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익 방송 실시, 건강 계몽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 건협은 사회 소외 계층 대상의 무료 검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을 위한 모든 보건·의료 혜택은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놓여준 주민·사회복지시설 수용자·도시 빈민·장애인 등 많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보건 의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건협은 그 동안의 성과를 사회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몇년간 이들 소외 계



건협은 우선 국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건협은 또한, 계층별 건강검사 프로그램 개발·시행, 특수검사항목 확대, 이동검진버스를 이용한 순회검진사업도 활발히 전개할 것이다.

층에 대한 무료 검진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각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환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본격화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건협은 기생충 및 건강 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기생충 관리사업으로는, 그 동안의 사업 실적과 감염률의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하여 특수기생충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검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즉,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도서지역의 기생충 감염률 실태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특수 기생충 예방을 위한 계몽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건강관리사업 분야에서도, 부녀자·어린이·미혼 여성 등 계층별 건강검사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것이며, 그 밖에도 특수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많은 검사의 혜택을 보다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부마다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새해에는 우선적으로 서울지부를 비롯한 몇개 지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이외에도 직장인·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동건강검진버스를 이용한 순회 검진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질환별 유병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건강진단 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바 올해에는 이 사업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협회 건강검사자의 질환별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질환별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새해에는 국제 교류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중 기생충 관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30여년간 쌓아 온 기생충 관리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

민기생충 관리가 중요한 보건 문제인 중국에 의료 장비 및 약품, 의료 기술 등을 지원하여 양국 관계 개선은 물론 세계인 건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한·중 의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새해에는 중국 기생충관리사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외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협은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할 직원들의 자질 향상 등 내적 충실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즉, 각 분야별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 분야별 교육을 강화·정착시킬 것이며, 직원의 전문연수기관 위탁 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지식과 경험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 세계는, “2천년대에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대 전제 아래 각국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이를 통한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 의료 측면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도 국민건강생활지침 제정 보급,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안 제정의 의미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의무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차원을 뛰어 넘어서 건강은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와 국민 모두가 책

**새해에는
국제 교류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중 기생충관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임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새롭게 환기시켜준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 국민 건강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따라 국민들은 각종 보건의료시설을 통해 보다 우수한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올바른 보건의식 함양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건협도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조사연구·건강검사 등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1995년 한해도 우리 건협의 임직원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72